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8호 [무계 제25577호] 주제 106(2017)년 3월 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디마스끄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일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3월8일혁명은 아랍사부흥당의 명도됨에 나라의 독립과 인권을 수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명도완성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 한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6(2017)년 3월 8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과 2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장 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적이 깃발이 있는 부대의 훈련실과 전투물원준비정황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인용들이 갖추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용감으로 수호해가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중국의 환구망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함부대 지휘관들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것만 보아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이곳 부대를 얼마나 중시하시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작전지휘실에서 대연함부대장으로부러 방어진계회교보를 청취하시였으며 군사연구실, 사격관, 요관군무장을 비롯한 이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대연함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칭으로 되는 장엄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로씨야의 인터넷통신사 가제 마, 우, 중국의 홍콩 방황위성 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인터넷의 인터넷통신보이스 오브 밀리언즈와 민주통교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군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트롬제이들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트롬제이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공문국가합방단창립 70돐 기념공연을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3.8 국제부녀절 107돐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이 결집 회합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실재도따라 만리마를 판 기세로 내달리며 혁명의 한복속세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온 나라 녀성들이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3.8국제부녀절 107돐 기념 중앙보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장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녀성혁명가가 되자!》, 《3.8 국제부녀절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장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

다한 충정과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주의대기정의 외투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와 열렬한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의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전광호 내각부총리, 홍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 서기장, 장순실 녀성중앙위원회 위원장, 평양시안의 녀성일군들, 녀성근로자들, 녀성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제복하고있는 세

강원도 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강원도의 당 조직들에서

만리마의 대비약속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용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안의 당조직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들 새차게 지펴올리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열정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원산전선발전소 당조직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주제 98(2009)년 1월 새로 건설된 원산전선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장군님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전례없는 승리를 높여주시는 내리는 과정과 당도들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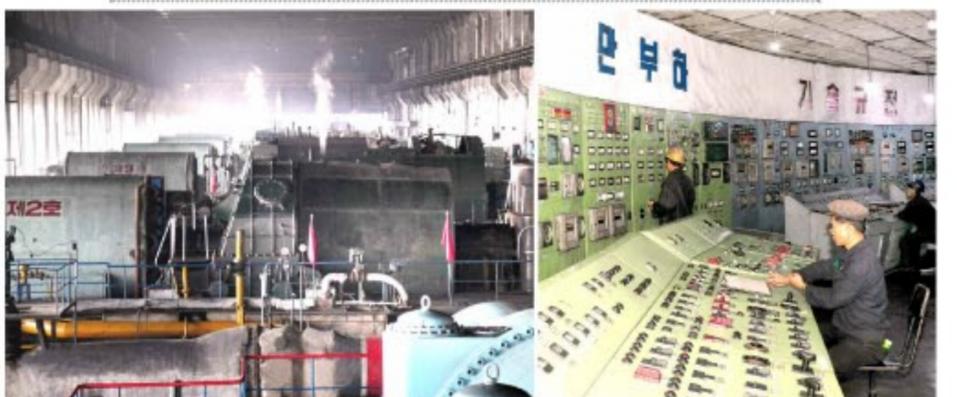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드높은 열의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산악간이 펼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강연도정신으로 용감결전을 돌이켜 농사차비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지난 2월말까지 508만 8천여 t의 기쁨을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고있으며 휴밭지와 맹수지개발, 소석회생산을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수천대의 트랙터를 수리하고 성능시험, 이종치비중합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생산하였으며 양수동력비수리와 물길까지, 저유지확장과 물길확장공사 등 농사차비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 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전의 일본새가 안배되있으면 우리에게 절멸 못할 요소도 되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농업전선은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전선이며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이라는 뚜렷한 사상적각오를 심어주는 화신적정지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와 일군들은 농업전선에서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원산전선발전소 당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상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락기조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완공과 함께 건설장의 흠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려명거리를 더욱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원형복원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대심기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화신적정지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의 해당 일군들은 려명거리에 전대심기작업을 정하고 특화사업을 집단기간에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민중없이 짜고들었다. 이미 수도 뚝뚝의 17만여㎡의 면적에 전대심을 뿌리고 그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온데 맞게 시에서는 지난 4일 각 구역의 해당 성원들을 참가시켜 전대심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의주거사업도 조직하였다. 이런 준비에서와 각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5일부터 일제히 려명거리에 전대심기작업에 전진하였다. 려명거리에 단층의 거미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지대한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민중대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파시하며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 70층살림집주변의 전대심기를 높은 책임성을 안고 붙이 번쩍 나게 다그쳐 받은 면적의 90%에 해당한 목지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성53구역의 원형복원을 받은 대동강구역의 근로자들은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4일동안에 1만여㎡의 면적에 목지를 조성하는데 이어 심은 전대심에 대한 비닐막막의우기를 철저히 마다세우고있다. 동대원구역, 맥포구역, 락관구역의 일군들이 전대심에만 필요한 물수기재와 도복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 한편 대중의 앞장에서 한호기, 한호기 전대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전대심기를 받은 순안구역과 삼석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전대심기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열의가 좋은 전대심기를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전대심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면서 전대의 사물들을 높이며 성장하는데 좋은 여러가지 영양액을 해당 단위들에 보장해주고 있다. 려명거리에 목지조성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펼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려명거리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고있다. 현지도보단

혁명거리를 건설소서 4일동안에 12만여㎡의 면적에 전대를 심었다

만리마속도로 창조의 불길들이 에네르getic하게, 폭력적으로 훌륭히 번모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전대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종합적인 고려한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5일부터 전대심기에 달려붙어 4일동안에 12만여㎡의 기본면적에 대한 전대심기를 진행하였다. 공사장주변 구획정리가 끝나는 즉시 목지를 조성할수 있는 민단의 준비가 갖추어져있는 속이 심은 전대심기의 생육조건보장을 위한 보존대책이 편이 이루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상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락기조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완공과 함께 건설장의 흠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려명거리를 더욱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원형복원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대심기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화신적정지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의 해당 일군들은 려명거리에 전대심기작업을 정하고 특화사업을 집단기간에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민중없이 짜고들었다. 이미 수도 뚝뚝의 17만여㎡의 면적에 전대심을 뿌리고 그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온데 맞게 시에서는 지난 4일 각 구역의 해당 성원들을 참가시켜 전대심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의주거사업도 조직하였다. 이런 준비에서와 각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5일부터 일제히 려명거리에 전대심기작업에 전진하였다. 려명거리에 단층의 거미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지대한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민중대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파시하며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 70층살림집주변의 전대심기를 높은 책임성을 안고 붙이 번쩍 나게 다그쳐 받은 면적의 90%에 해당한 목지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성53구역의 원형복원을 받은 대동강구역의 근로자들은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4일동안에 1만여㎡의 면적에 목지를 조성하는데 이어 심은 전대심에 대한 비닐막막의우기를 철저히 마다세우고있다. 동대원구역, 맥포구역, 락관구역의 일군들이 전대심에만 필요한 물수기재와 도복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 한편 대중의 앞장에서 한호기, 한호기 전대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전대심기를 받은 순안구역과 삼석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전대심기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열의가 좋은 전대심기를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전대심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면서 전대의 사물들을 높이며 성장하는데 좋은 여러가지 영양액을 해당 단위들에 보장해주고 있다. 려명거리에 목지조성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펼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려명거리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고있다. 현지도보단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평양 화력발전 전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혁명렬사 오진우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혁명렬사 오진우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보고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력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상상 벽두산 모형이 걸려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항일혁명렬사들과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무한의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김기남동지, 최대복동지, 리명수동지와 전광호 내각부총리,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유가족들, 평양시민들, 기업소, 풍장 일꾼들, 풍모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항일혁명렬사 오진우동지의 혁명생애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충대옹호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으며 자기 수령, 자기 명도자뿐이렇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오신 오진우동지의 백옥같은 충정성과 혁명가적용모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항일혁명렬사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깨끗한 광심과 의리로 받드는 견결한 전위투사, 열혈의 충신이 되어 당과 혁명대오의 일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진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려라》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옥같은 충정과 이리로 우리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의 보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로정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정심을 지니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수많은 혁명선렬들의 위훈의 자욱이 려려히 아로새겨져있으며 그 전열에는 항일혁명렬사 오진우동지의 모습도 빛나고 있습니다.

은 나라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인리마추도상조결공이 새차례 휘날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진우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투사의 승고한 혁명정신과 투쟁열의를 돌이켜보면서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위대한 당의 명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혁명생애의 전기국 무장투쟁을 위한 혁명적업무를 받들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투사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는 오진우동지의 사상정신적특질이었습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고 무서움도 핏발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변함없이 있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한모양, 한본색인 리였어 순결한 한생을 꽃피운것으로 하여 오진우동지의 혁명생애가 그러할 빛나는 것입니다.

오진우동지는 혁명의 개척기에 간직한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한생도록 변함없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며 오직 한길만을 끝까지 걸은 전진배기충신이었습니다. 오진우동지가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동일과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오진우동지의 혁명생애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혁명가의 한생이였으며 자기 수령, 자기 명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소부대활동의 나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두만강연안, 동해안북부조선연안에서 벌어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적극 보좌드리고 사명부임의 안건이여야 전진로 공격하고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소부대활동의 나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두만강연안, 동해안북부조선연안에서 벌어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적극 보좌드리고 사명부임의 안건이여야 전진로 공격하고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주체21(1932)년 가을 고쳐된 흉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은 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당시 황청진 소부구 아동단체도원으로서 사업하고있던 오진우동지는 인민군대의 예지로 조선혁명이어나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있던 항일전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맡고있던 때였습니다.

항일전의 나날 사명관동지의 명명관철을 위해 불사신처럼 싸워온 오진우동지는 주체28(1939)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 적해후교관전투를 벌일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을 때 대사관동지를 비롯한 여러 전위투사들에서 능숙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대원들을 무자비한 심판전에도 불리하고 수백명의 적들을 소탕하고 사명부의 작전적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제1계단전투시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기보하고도 불의적 인 아간해안상륙작전과 병렬한 소대활동으로 적의 위풍을 현수행동하여 아간해안상륙작전의 작전전투행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으며 전격적인 일시적투입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의 무조건 관철을 위하여 전열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 파업을 주시던 그날이 아무리 어려울 일이고 애소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달려나가서 직무에 몸을 맡기고 밤잠을 잊고 애써 노력하여 인제나 받쳐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짐신념과 의리의 맹세를 지켜 불치의 병으로 운신조차 하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부상을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따라 최후까지 투쟁하는 투쟁정신을 가슴뜨겁게 보여주었습니다.

혁명의를 입고 한생을 살아가는 오진우동지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대옹호하고 충정하게 받들었으며 그 길에서 투쟁하는 생의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시절에나 조선인민군 헌수로서 인민투쟁의 높은 직책에서 사업할 때나 혁명전사로서의 오진우동지의 자세와 열정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비리형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으로 안락의 천우들의 준을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를 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승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일전의 나날 사명관동지의 명명관철을 위해 불사신처럼 싸워온 오진우동지는 주체28(1939)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 적해후교관전투를 벌일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을 때 대사관동지를 비롯한 여러 전위투사들에서 능숙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대원들을 무자비한 심판전에도 불리하고 수백명의 적들을 소탕하고 사명부의 작전적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제1계단전투시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기보하고도 불의적 인 아간해안상륙작전과 병렬한 소대활동으로 적의 위풍을 현수행동하여 아간해안상륙작전의 작전전투행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으며 전격적인 일시적투입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의 무조건 관철을 위하여 전열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 파업을 주시던 그날이 아무리 어려울 일이고 애소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달려나가서 직무에 몸을 맡기고 밤잠을 잊고 애써 노력하여 인제나 받쳐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짐신념과 의리의 맹세를 지켜 불치의 병으로 운신조차 하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부상을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따라 최후까지 투쟁하는 투쟁정신을 가슴뜨겁게 보여주었습니다.

혁명의를 입고 한생을 살아가는 오진우동지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대옹호하고 충정하게 받들었으며 그 길에서 투쟁하는 생의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시절에나 조선인민군 헌수로서 인민투쟁의 높은 직책에서 사업할 때나 혁명전사로서의 오진우동지의 자세와 열정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비리형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으로 안락의 천우들의 준을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를 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승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실공히 당과 수령의 군대로, 불계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혁명주의화강령을 높이 받들고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여 수명전사용위투사들로 키우며 군대안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일하에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혁명군체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애달로 노력하였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 60만명중 유일적혁명정신에서 주석단에 거머쥔 시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항일의 혁명로장 오진우동지가 사명보고를 올리던 감동적인 화폭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오진우동지의 투쟁정신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주시던 그날이 아무리 어려울 일이고 애소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달려나가서 직무에 몸을 맡기고 밤잠을 잊고 애써 노력하여 인제나 받쳐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 파업을 주시던 그날이 아무리 어려울 일이고 애소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달려나가서 직무에 몸을 맡기고 밤잠을 잊고 애써 노력하여 인제나 받쳐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짐신념과 의리의 맹세를 지켜 불치의 병으로 운신조차 하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부상을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따라 최후까지 투쟁하는 투쟁정신을 가슴뜨겁게 보여주었습니다.

혁명의를 입고 한생을 살아가는 오진우동지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대옹호하고 충정하게 받들었으며 그 길에서 투쟁하는 생의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시절에나 조선인민군 헌수로서 인민투쟁의 높은 직책에서 사업할 때나 혁명전사로서의 오진우동지의 자세와 열정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진우동지는 비리형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으로 안락의 천우들의 준을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를 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승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3 번 으 로 계 속

죄악에는 징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 내리어온 초침이 피피회법제판 소에 울리고있다. 현재 박근혜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최종판까지 미친 《헌법재판소》는 진정본초인박성에 붙어 있다. 피피회법제판소는 사안에 대한 정의를 집행한 뒤 인자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시각이 박근혜를 구속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의 단발머리발악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청와대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본에서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워 자기의 범죄를 봉방 무정하는 망물을 부리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에 앞장서 《박사모》쓰레기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추태를 부리었다.

박근혜역도의 법률대리인단에게 죄들도 《탄핵소추수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심판을 뒤집어엎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역당이 던져주는 썰문을 받아들이는 어중이떠중이들은 초법집회를 쉼없이 가자는데서 무리도 달려들어 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풍문연히 위협하고있다.

《박사모》가 온갖은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과징금만 사라지면 탄핵심판은 거각이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결정에 솔근하지 못하도록 점을 예의써자》 등의 글들이 퍼져서 올라오는 편이다.

저들이 산같이 쌓아온 죄악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고사하고 더러운 진영을 부지하고 반역《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박근혜역도에게 《헌법재판소》의 망물본초인박성은 내외의 지긋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특대형죄악은 이미 탄핵판에 날아가 폭로되었다. 역도가 탄핵심판판역에 온갖은 사상수배에는 추문사건을 잊어본 국익한 범죄자에게

차별적 용당한 징벌이다.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청와대인방에 몰고 갔어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온갖 불법 죄행위를 저지른 국익한 특대형, 무죄무능한 박근혜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벗겼다.

지난해 12월 피피회법에서 통과된 박근혜탄핵소추안은 탄핵의 중대죄유로 피피회법도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게 《국징》을 내밀고 그들을 통하여 주요정책들을 결정하였으며 직권을 악용하여 재벌들로부터 강압적인 압력으로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뇌물을 받았던 일도 그리고 《세월호》참사 당시 직부래만으로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속에 수장한것 등을 들었다.

박근혜역도는 집권전부터 자기를 그 무슨 《은비린 내성대통령》으로 몰장 광고하고있고 특히 《정권》과 《결핵》을 운운하며 부정부여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 뻔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피피회법도아무리 부패무능하고 돈도직접에 환장한 인간수를 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박근혜역도는 《대통령》명까지인 썰문본 모든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주고 년의 지휘봉에 따라 폭두각시처럼 놀았으며 인민들을 개, 돼지로 천시하면서 민생이 어떻게 되든 재벌들을 끼고 부귀할락은 누리면서 온갖 무면죄을 일삼았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온갖 범죄행위이다.

박근혜역도가 최순실과 작당하여 저지른 특대형범죄행위들은 특검수사과정중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그의 의하면 박근혜역도는 아무런 공적도 없는 한자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에 게 연설문을 비롯하여 술한 문서들을 넘겨주고 그의 조종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것이다. 최순실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야만

95건에 달하는 박근혜의 연설문을 수정하였으며 수시로 청와대기밀문건들을 받아보고 결재를 해주었다.

박근혜역도는 또한 최순실과 청와대대변인들을 통해 사기와 입찰,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50여개의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을 뜯어내고는 그것으로 자기가 퇴임후 리용할 비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미르재단, K스코스재단을 설립하고, 역도가 재단명칭과 미르재단명단 그리고 사무실위치에 대한 자료를 최순실로부터 전달받고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로 비서관인 안동범에게 재단설립과 관련한 업무과제들을 직접 지시한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박근혜역도의 죄행들을 일일이 다 풀지엔 힘이 없다. 박근혜, 최순실일당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특검법사의 수사기록이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어찌하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죄악에는 징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집권후 온갖 못짓만 일삼으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청와대당파가 그 엄청난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역도의 무조건적인 탄핵과 처형은 거역할수 없는 남조선민심의 명령이며 백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박근혜역도는 온갖 악의 권력이며 부패의 장본인이다. 박근혜역도 권력의 지레에 끌리고자 한것이 내민 인권을 기간, 우롱하며 남조선사회진보를 용제적인 과격에 몰아넣고 복남관계를 풍자박산냈던것이다.

지금껏 저지른 죄악으로 보나 아직도 초법집행에 한사코 도전하며 오만무매하게 날라는 못된 민역적기질로 보나 박근혜역도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을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각계중 인민들이 내린 최후명령이다. 그들은 청와대에거한 미를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

리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한결같은 의지에 넘쳐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의 절대다수가 박근혜역도에 대한 탄핵과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총선은 그 권력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현재까지 무려 19자를 기록하며 진행될 초법집회는 만가지 악의 권력이며 부패의 환근인 청와대당파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의지의 표시이다. 불도가나마는 무굴불을 끌어내리고는 두행행장에서는 《박근혜 퇴진하라》,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함성이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날 날에도 온 남녘방울을 누비는 용용한 초법대하는 박근혜역도를 거어어 먹사의 무덤속에 처넣기 위한 결사항전이다.

지금 박근혜역도당은 비참한 운명의 시각이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더러운 진영을 부지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피피회법제판이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광적으로 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되는 탄핵결정의 그 무슨 《법적결함》에 대해 고아되고있는것은 그 대적적실제이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며 죄는 지는데로 가기 마련이다. 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은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인방에서 쫓겨나 추세를 차고 철수하는데 끌려가는것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시대의 오물이고 백사의 쓰레기인 특대형범죄자 박근혜역도가 더이상 《대통령》명까지를 쓰고있어야 할 리유가 없다.

부패정치, 반역정치, 세 생황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심철영

탄핵은 거역할수 없는 민심의 요구

지난 6일 남조선의 특검법사가 90일동안 파헤쳐온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와대대변인의 치명적인 죄행이 더이상 무인할때야 무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확정되었다.

특검법사는 이번 수사결과를 통하여 박근혜역도에 대해 죄를,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누설죄 등 11개의 죄목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피피회법합이 박근혜역도의 추문사건에 적용했던 8가지 죄목보다 더 불어난것이다. 이번 수사결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추문사건은 출몰수목 더욱 고약한 범세를 풍기는 두당대미와 다를바 없다.

이 특검법사는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하여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윤선을 비롯하여 30명을 동반자로 막판하고 재판에 넘겼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12차례의 특검이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추세를 전가자 한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문수명의 범죄행위가 한꺼번에 걸리는 예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 집권 4년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못짓만 일삼은 박근혜역도의 죄행은 더이상 부인할수 없게 되었으며 피피회법대는 온갖 조직적인 범죄를 낚는 악의 소굴이라는것이 다시금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현재의 특검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박근혜역도는 총신형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남조선사람들은 물론 보수정당안에서까지 이제는 박근혜의 탄핵심판이 명백해졌으며 탄핵가능성은 거의 100%라는 비망이 넘쳐나고있다.

박근혜역도가 특대형추문사건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대변에서 쫓겨나 추세를 차고 철수하는데 끌려가는것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시대의 오물이고 백사의 쓰레기인 특대형범죄자 박근혜역도가 더이상 《대통령》명까지를 쓰고있어야 할 리유가 없다.

부패정치, 반역정치, 세 생황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에 대한 대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월호》 7시간정착을 비롯하여 청와대대변의 많은 범죄가 여전히 흑막속에 묻혀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죄행만으로도 피피회법에 탄핵당하고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받는다는 조공도 무리할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에 대한 법적조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특검법사들은 지난 90일동안 조사한 피피회법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검찰당국에 넘겼다.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죄악에 대한 검찰조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는 즉시 청와대대변을 지체없이 구속하여 죄행의 밑바닥까지 깨어 들추어낼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지금 박근혜역도와 《자유한국당》계파리들은 특검법사의 수사결과발표에 대해 절고물면서 너무도 뻔뻔하게 드러난 저들의 죄행을 감싸고 한사코 탄핵을 모면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죽어가는자들의 단발머리인 발악이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역도에 대한 탄핵은 민심의 명령이며 백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재판관은 인민이다. 인민의 심판은 언젠가 정화하며 인민을 기만우롱하고 반역을 일삼은 박근혜역도는 인민의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거세한 초법투쟁으로 박근혜역도에 사형선고를 내린것은 민역 정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제명을 다한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워보려고도 발광하는것보다 더 부질없는 망물은 없을것이다.

제아무리 추태를 진도하는 모략의 능수, 포악한 추세자라도 분노한 민심을 이길수 없으며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패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세 정치, 세 생황을 요구해나오는 남조선인민들의 권에 서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번의 특검수사결과발표로 박근혜역도는 남조선정치사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막연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통일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박철준

자멸을 청하는 무모한 망동

일본정권총리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극 추종하여 본토를 미군의 병참기지로 내밀고있다.

올해 백두대리 해노코미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있는것이 탄핵인 실례이다. 이 기지건설은 오기나오지 않는것이라는 후면미미공군기지를 해노코미로 이설하기 위한것이다.

해노코미는 이미 미국의 캠프 슈와브키지와 만악고지 지라졌고있다. 일본정권총리는 이곳에 미군수송기와 F-35B를 배치할수 있도록 2개의 활주로와 기타 부대시설을 건설하려 하고있다. 또한 《워스》군수출량상승통제기 정박장 있는 대형정박장을 포함하여 새 시설들도 건설하려 하고있다.

어찌구무없는것은 이러한 방대한 미군기지건설을 일본이 저들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일본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대해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까지 자기 땅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벌써 《싸드》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방위성이 이씨일방위체계연구위원회를 내오고 《싸드》를 비롯한 미군수 무기들을 시험할 반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이러한 행태들은 제정무 미군의 병참기지로 설계하여서라도 《대통령》의 옛몸을 거어어 실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군국주의적망동이다.

아시아를 제패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할없는 야망이며 전략적목표이다. 제정무 지금까지 일본은 어느 한순간도 이러한 야망을 버린적이 없다. 그를 위해 자기 나라를 총체로 미국에 군사기지로 내밀고있고있다.

일본인민들은 이를 경계하지 못해나서고있다. 1995년에 오기나오지 않는것이라는 일본인소녀간사건을 비롯하여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미군기지들의 리석후원에 의한 소음공해, 수질오염수송기 《오스프레이》에 의한 연속할수 없는 사고발생우려 등으로 하여 일본인민들은 불안하고 고통속에 살고있다.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반동들은 미군기지건설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일본의 속심은 상진인 미국을 통해 업고 우리 나라를 첫 목표로 하여 제정의 길에 나서자는데 있다.

미국이 도달한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총체로 미군의 후방기지로, 병참기지로 삼아버렸다.

오죽했으면 일본주재 미국대사였던 머피가 일본이 미군의 병참기지, 수리기지, 보급기지의 역할을 할때 대하여 《일본은 놀라운 속도로 자기들의 실을 하나의 거대한 보급창고로 전변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조선전쟁을 한사코 이겼을것이다.》라고 말하였겠는가. 미국주요정당 경 《유엔연》사령관이었던 미치타는 《일본군국주의의 조달에 의한 자랑스러운 제 생황은 역무의 실적이 없었더라면 조선전쟁은 3개월도 유지할수 없었을것이다.》라고 실로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그대를 또다시 세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내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자위대》무력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제정의 길에 오른다면 세일정기 폐쇄를 본것은 일본이다. 미군의 후방기지, 병참기지로 전락되고 일본반동들의 제정의 부자기도 되여있는 일본방은 적수들의 기폭자격으로 되어있다.

일본이 해노코미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스스로 자멸을 청하는 어리석은 행태이다.

일본반동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장단에 주대없이 계속 놀아나다면 차레질것은 파멸이다.

인권유린범죄국의 감출수 없는 정체

미국은 저들민족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는 나라를 없다고 자처하면서하고있다. 하지만 내세우지 못하는 죄를 묻고 폭로되고있는 미국의 범죄적행위를 그것을 여지없이 부각하고있다.

최근 필리핀대통령 트라페르는 어느 한 연설에서 마르디나오주의 외전 소도시 마마라베에서 발생한 2015년 총력사건의 때후에 미중앙정보국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키노는 그 도시에 온신원적으로 일정한 때로분자에 대한 체포작전을 개시할것을 이진 경찰국장에게 지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미중앙정보국의 작전이었다고 한다. 그로 하여 44명의 경찰특수부대원들을 포함한 60명의 희생자가 됐다.

경찰국장은 그후 가택내 사영정치처분 명령에 고한다.

한때 이 참사와 관련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미국의 개입 등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고있다.

이로써 세계도에서 모략과 테로, 인간살육행위를 업으로 삼고있는 미국의 정체가 또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얼마전 미중앙정보부 대변인은 자기들이 필리핀에서 미군수리인용한 미국은 《이슬람교국가》목표물들을 타격하였다고 실로하였다.

그는 미국정부 《포인틀리》에 2015년 11월 16일과 22일 미공군의 군용기가 필리핀우라니온이 들어있는 30mm경의 직경한 5285발을 발사하여 수리인용부사에게 있는 《이슬람교국가》차량들을 파괴하였다고 밝혔다.

비밀적인 리용수송에 리용되고있는 국제도로간제차량들에 대한 파괴를 계속 높이기 위해 철화우라니온탄을 사용하였다는것이다.

미국이 제정한 《안테로진》을 발원하는 용내를 내세우고 《견과》를 열거하였지만 그것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한다. 필리핀우라니온탄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철화우라니온탄을 사용하지 않겠음을 공약하였지만 미국도 또한 그런 대변인 2003년 이래로 미공군정체로 스스로 리용되었던 철화우라니온탄을 《이슬람교국가》의 싸움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철화우라니온탄을 또다시 사용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범죄국가이다.

미국인민들의 사생황을 알아내고 다른 나라들의 내부민을 때내는 도청행위를 하다가 뒤미미를 잡혀 계교당신을 당했던 미국은 그 무거운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프랑스신문 《라 리베라시옹》은 2012년 프랑스대통령선거때 미중앙정보국이 대통령후보들의 통화내용을 도청감시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문건을 폭로전문분보사이트 위윌리스가

인용하여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여 미중앙정보국의 도청목적은 프랑스에서의 대통령선거형태와 미국-프랑스관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것이었고 한다.

미중앙정보국은 프랑스의 대통령후보들이 미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고 어떤 나라 지도자들과 면담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는것과 정당들의 선거전략과 계획 등 정보를 수집하였다.

프랑스인민들은 미국의 간첩행위가 폭로된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정보기관들이 2006년-2012년사이에서 3명의 프랑스대통령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였으며 대통령공경의 통화내용을 해킹한데 대해 사기시켰다.

정세분석가들은 이번 도청사건은 간첩세계에서 친구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동맹국까지 도청하고있는 미국이니 잠재적적수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이 못된다.

로키아와무상 파르모르는 미국이 워싱턴주에 로키아에서 세르세이 키슬라코의 통화내용을 정기적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사를 위생문제에서 진행하고있는 사영정형에 대해 모스크바에 보고하는 내용까지도 도청하였다고, 미국은 완전히 비밀적이고 유치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온 세계에서 숨어지고있는 모든 과정을 열람하기 위해 기술을 부리고있다는것을

오래전부터 드러내보여주었다고 단리하였다.

세계도에서 테로와 인간살육행위, 불법도청행위를 일삼고있는 미국은 그 무슨 인민이나 국제법에 대해 혼란 초보적인 사적도 없는 세계화대의 인권유린 범죄국이다.

세계제대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국은 확고년간 그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위한 지나친 군비증가로 지금 미국의 재정형편은 말이 아니다. 이로부터 전면전쟁을 피하면서서도 탐모막과 테로행위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에 3명의 프랑스대통령들의 통화내용을 해킹한데 대해 사기시켰다는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의지도 없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소동을 피우려는것은 저들의 침략야망실현을 위한 한자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침략과 지배주의정체로 때때로 다른 세계적으로 불치거리인 테로를 잘도 근질할수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리용속에서 테로와 모략으로 생내고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한지는 인권유린의 주범 미국의 죄악은 세계의 정의와 항성앞에서 반드시 세산될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때 큰 버림을 받고 총발을 고쳐야 하며 어용리치 않은 국제제야망을 버려야 하며 어용리치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당장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리현도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싸드》

그 무슨 《북핵, 미싸일위협》에 대항한다는 구실이며 감행하는 미국과 피피회법의 군사적대결과 발발음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지금 이미 미싸드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피피회법정들은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의 침략적인 항공군사시설을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싸드》배치를 급속도로 다그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는 그 어드레모다 침해지고있다. 얼마전 피피회법대변인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뜻에 그들과 함께 《싸드》배치를 위한 부지코관제약을 체결하였다. 피피회법의 대국민적정당동으로 성주플로장은 결국 《싸드》가 총고았을 미제침략군기지로 전락되게 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피피회법은 즉시 성주플로장을 위수구역으로 선포하고 미군속에 부지코를 넘기는 시범과 함께 기지건설을 위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 피피회법은 《싸드》배치를 일당기 위해 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지대정리만 되면 레이더를 비롯한 일부 《싸드》장비들을 먼저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번에 피피회법과 전격적이지 않았던 뜻에그들의 부지코관제약을 드러내 결국 《싸드》배치를 반개봉에 몰락이듯 부리나세 다그치고있는것은 박근혜탄핵사태로 갈도마에 오른 《싸드》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환진적고리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은 《싸드》배치를 통해 조선반도주변나라들에 대한 전략적우위를 차지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것을 꾀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제, 군사를 비롯한 각 방면에 걸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고있다. 주변나라들에서는 《싸드》가 배치되는 성주플로장을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대국국들의 위협한 최대정당으로 전락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피회법정들은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에 적극 추종하면서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역적행위를 피는이 되여 날뛰고있다. 피피회법이 《싸드》를 한사코 끌어들이기 위해 어떻게 말쑥적으로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이번 뜻에그들과의 거대파정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이 터지고 그로 하여 《싸드》배치를 위협을 받게 되자 배반을 느낀 미국은 피피회법정들에게 《싸드》배치를 빨리 다그칠것을 강박하였다.

망명을 붙이 달린 피피회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요란스레 떠들며 《싸드》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남조선 경제총 역도권의 구속수사를 요구

남조선의 《JTBC》방송에 의하여 6일 남조선의 인민들이 박근혜역도년의 구속수사와 관련하여 전지역에서 각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8.2%가 《국정》통사건 90%가 역도년의 감속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피회법제판리들은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들어먹고 《싸드》배치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지금 피피회법은 각계의 항의투쟁에 대치하여 전성공사를 위한 총자금을 적용기로 신어나르고있으며 기지주변에 피피회법행위를 배치하고 경제를 강화하고있다.

피피회법이 미국과 합동침략하여 《싸드》배치에 미쳐들여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자살적망동이다. 피피회법들의 무분별한 《싸드》배치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배치소동

를 파괴하는 《싸드》배치소동을 강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적극 펼쳐나갔다. 다만 이번 투쟁을 비롯한 야망들은 현 리피회당이 《싸드》배치를 당장 중지하고 그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나갔다. 주변나라들도 남조선이 잘 못된 결정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피회법제판리들은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들어먹고 《싸드》배치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지금 피피회법은 각계의 항의투쟁에 대치하여 전성공사를 위한 총자금을 적용기로 신어나르고있으며 기지주변에 피피회법행위를 배치하고 경제를 강화하고있다.

피피회법이 미국과 합동침략하여 《싸드》배치에 미쳐들여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자살적망동이다. 피피회법들의 무분별한 《싸드》배치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피민은 인종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대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회색의 대국역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박근혜의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사회의 민심이 만영된 여론조사결과를 시대적 국과 동족대결행동, 만민민적행위를 일삼는 박근혜역도가 갈수록 응달사의 67.7%가 같은 뜻을 오직 강요하여 없다는것을 응원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 역도권의 구속수사를 요구

남조선사회의 민심이 만영된 여론조사결과를 시대적 국과 동족대결행동, 만민민적행위를 일삼는 박근혜역도가 갈수록 응달사의 67.7%가 같은 뜻을 오직 강요하여 없다는것을 응원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 반대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게지켜올려야 가중되는 민역우려들에게 정벌의 철수를 인격어 할것이다.